

엠앤씨솔루션, 상장 첫날 20.31% '뚝'... IPO 시장 '찬바람'

올해 마지막 IPO 대어 주목에도
공모가 대비 20.31% 하락 마감
IPO 시장 침체·고평가 논란 원인

코스닥 새내기주 '벡트' 98.21% ↑
온코크로스 등 코스닥 상장 예정

올해 마지막 IPO 대어로 주목받았던 엠앤씨솔루션이 상장 첫날 약세로 마감해 IPO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분위기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새내기 공모주의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분위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엠앤씨솔루션은 코스피 시장에서 공모가 대비 1만3200원(20.31%) 하락한 5만1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K9 자주포와 K2 전자 등에 적용되는 포·포탑 구동장치를 제조하는 방산업체인 엠앤씨솔루션은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상장 과정에서 잇따른 흥행 부진으로 실망스러운 성적



ChatGPT에 의해 생성된 기업공개(IPO) 시장 이미지.

표를 냈다.

지난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8.18대 1에 그쳤고, 공모가도 희망 공모가 밴드(8만~9만3300원) 하단보다 19% 낮은 6만5000원에 확정됐다. 이어진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통합 경쟁률이 2.4대 1로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엠앤씨솔루션의 청약 부진은 IPO 시장 전반의 침체와 함께 고평가 논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엠앤씨솔루션(MNC솔루션)은 연간 순이익이 300억 원에도 못미치지만 공모밸류는 최대 8800억원으로 제시돼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주요 비교 기업인 LIG넥스원의

주가 급락과 구주매출 비중(50%)의 높은 비율도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모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는 신주 발행과 달리 구주매출은 기존 주주에게 돌아간다.

반면 이날 코스닥 시장 새내기주인 벡트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벡트는 공모가(3900원) 대비 3830원(98.21%) 뚫 77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앞서 벡트는 지난달 25~29일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96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모가는 희망 범위(3500~3900원) 상단으로 확정됐다. 일반 청약에서는 1170.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IPO 시장은 10월 이후 신규 상장 기업들이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옥석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공모주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씨케이솔루션, 미트박스글로벌, 삼양앤씨켄, 동방메디컬, 아이에스티이, 모티브링크, 데이원컴퍼니 등은 상장을 미루거나 철회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8일과 19일에는

인공지능(AI) 신약 플랫폼 기업 온코크로스와 바이오 기업 온코니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상장한다. 온코크로스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약 1313대 1로 집계됐다. 청약 건수는 6만1357건, 주문액의 절반을 미리 납입하는 청약 증거금은 약 1조 7000억원이었다.

온코크로스와 함께 청약을 마감한 신약 연구개발 기업 온코니테라퓨틱스는 92대 1로 일반 청약을 마감했다. MNC솔루션이 일반 청약에서 2.4대 1의 경쟁률로 겨우 미달을 피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IPO 기업은 더욱 큰 부침을 겪는다"며 "공모가가 낮게 설정되더라도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면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내년 초까지 증시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 4개월째 '오리무중' 'SOL 美배당 미국채혼합50' 순자산 1500억

지난 8월 5일 중단 이후 재개 안 돼
증권사 "안정성 고려해야"... '신중'

미국 주식 시장이 연말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낮 시간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낮 시간에 거래할 수 있는 '주간거래 서비스'가 지난 8월 5일 중단된 이후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복원시점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투자협회와 국내 증권사들의 주간거래 서비스를 도맡았던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간의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4개월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산타렐리' 기대감이 고조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신고점을 갱신했다.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며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투자자들이 몰리는 형국이다.

한 해의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는 '써머 타임 체제'가 끝나면서 미국 정규장이 열리는 시간도 늦어져 본장에 투자하려면 더 피곤해졌다"면서 "주간거래가 될 때는 이런 걱정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되지 않아 불편해하고 있는 투자자 이미지.

이 전혀 없었는데 언제 주간거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빠른 대응을 할 수 없어 불편함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간거래는 국내 투자자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2022년 삼성증권에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도입했다. '블랙먼데이'를 기록한 지난 8월 5일, 블루오션은 국내 투자자들의 폭증한 주간거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거래를 일괄 취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약 9만 계좌, 6300억원 규모의 거래가 무효 처리됐다.

금융투자협회는 블루오션 측에 시스

템 장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블루오션은 성명서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주간거래 재개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거래 안정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 주간거래는 'NMSStock ATS'에서 체결된다는 점에서 정규거래소를 통한 주식거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주간 거래에서 오류가 생기면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거래 편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그 전에 국내 증권사는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국내 증권사들이 블루오션 ATS의 시스템 점검에 직접 참여해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거래의 일방적 취소에 따른 보상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자산운용, 상장 2개월 만에 15배 ↑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규모가 15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말 상장 이후 약 2개월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43개 자산배분형(멀티에셋) ETF 중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한 일반계좌에서 최근 1개월, 3개월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투자자가 상장 이후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1200억원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순매수했다"라며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가 연금투자자들 사이에서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전자산 30%의 투자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자금 유입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을 5:5 비중으로 투자하는 SOL 미국배당 미국채혼합50 ETF는 국내에 상장된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납입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변동성장세에서도 성과 방어가 가능한 미국배당 다우존스의 장점에 더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퇴직연금 내 주식비중을 최대로 높일 수 있어 다양한 연금투자전략 구성에 도움이 되는 월배당 상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증권,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수상

금융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 주관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금융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사가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빗 뱅크 어워드(Global Private Bank Award)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를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는 1987년 뉴욕에서 창간된 금융 전문지로 약 190개국에 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금융기관을 종합평가해 다양한 분야의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그 중 금번 미래에셋증권이 수상한 상은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니즈를 이해하고 수준 높은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주어진다.

글로벌파이낸스에 따르면 미래에셋증

권은 ▲ 고액자산을 위한 종합자산관리 역량 ▲ 프라이빗 멤버십 서비스 ▲ 수준 높은 AI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 WM 실적 성장 및 고객 자산 규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월 영국 유로머니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로 선정된 데 이어 금번 수상을 통해 국내 최고의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으며, 특히 이 상이 한국 증권사 최초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허정윤 기자

한투운용,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성과 1위

테스트베드 운용 시작한 지 1년 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퇴직연금 일일 서비스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이하

KimRobo)가 테스트베드참여업체별 평균 누적 수익률, 평균 샤프지수를 통틀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에서 운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16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 중인 KimRobo의 전체 알고리즘의 평균 누적 수익률은 24.01%에 달한다.

/허정윤 기자